

1 국화도 전경 2 국화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지섬 전경

꽃처럼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국화도'

국화도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남서부 28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궁평항(화성시 서신면)에서 배로 40분이면 들어갈 수 있다. 섬이 작아 해안 둘레길과 능선 숲길을 모두 걸어도 3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국화도는 전에는 꽃이 늦게 피고 진다고 해서 만화도로 불렸다. 그러나 나무로 취사와 난방을 하던 시절에 섬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 내게 되자 그 자리에 야생 들국화가 많이 번성하면서 육지에서 바라보면 바다에 노란 들국화가 핀 듯한 형상으로 보여 국화도라 불렸다고 한다.

장고항이나 왜목마을에서 바라보면 국화도와 형제처럼 나란히 토끼섬이 보인다. 500m쯤 되는 국화도와 토끼섬 사이에는 썰물 때에 갯바위와 모래밭이 드러나 걸어서 건너갈 수가 있다. 이 바닷길 주변에는 고동을 비롯한 각종 조개가 풍부하다.

국화도는 본섬 외에도 부속 섬으로 무인도인 북쪽의 매박섬과 남쪽의 도지섬이 형제처럼 붙어 있다. 이들 새끼 섬들은 만조 때는 독립된 섬으로 있다가 썰물이 되면 바닷물이 빠져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 모세의 기적이 이곳에서도 일어난다.

소박한 어촌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국화도의 북쪽에 위치한 매박섬(토끼섬)은 바지락, 대수리, 고동 등이 많이 서식한다. 남쪽에 위치한 도지섬은 조약돌과 조개껍데기로 풀등을 이루고 있어 조개를

잡거나 바지락 체험, 좌대 낚시 등을 할 수 있다. 국화도와 토끼섬 사이에는 썰물 때에 갯바위와 모래밭이 드러나 도보로 건널 수 있다. 이 바닷길 주변에는 고동을 비롯한 각종 조개가 풍부하다. 국화도 선착장 마을에서 야트막한 언덕을 넘어서면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난다. 조개껍데기와 모래가 적당히 어우러진 천혜의 해수욕장이 활처럼 동그랗게 펼쳐져 있다.

해수욕장은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모래와 자갈한 자갈이 섞여 있어 서해의 다른 지역과 달리 물이 매우 맑은 게 특징이다. 해안의 서쪽은 경사가 심하고, 남서쪽에는 해식애와 파식대가 존재한다. 암석은 엮리 구조를 보이는 호상편마암, 반상변정질편마암, 석회규산염암으로 구성됐다.

특히 섬의 서쪽에는 마을 다음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소나무 군락이 섬을 온통 뒤덮고 있는 소나무 숲 때문에 멀리서 보면 천혜의 자연을 품은 보고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연을 체험하면서 힐링할 수 있고 공존과 여유로움을 즐기기 제격인 국화도. 휴가 때 먼 곳까지 떠나기 부담스럽다면 서울서 가깝고 아직 들춰지지 않은 매력을 품은 국화도로 한번 떠나보자. ❶



Save Mobility

화성시 무상교통

지출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 ✓ 1단계(만7~18세 이하) 2020. 11.부터 시행 중
- ✓ 2단계(만65세 이상) 2021. 7.부터 시행 중
- ✓ 3단계(만19~23세 이하) 2021. 10.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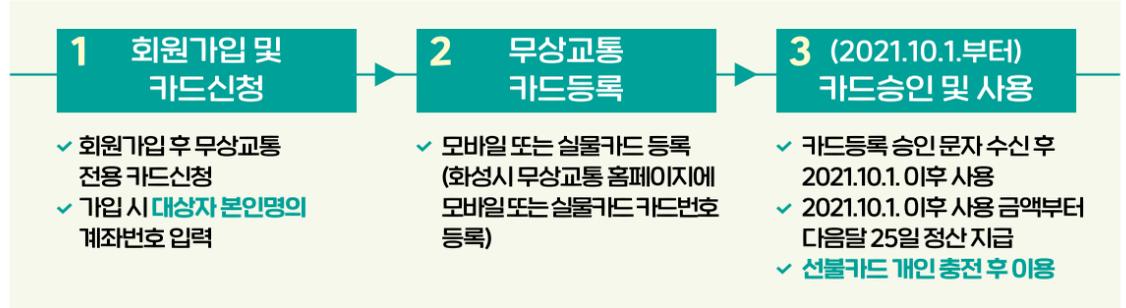
※ 기존 청소년 사용자 중 만19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청년은 기존 카드로 계속 사용 가능
 ※ 타 시에서 화성시로 전입한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1. 8. 1.(일)부터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https://savebus.hscity.go.kr>)
 ※ 포털 검색창에서 '화성시 무상교통' 검색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바로가기

'화성시 무상교통' 🔍



※ 실물카드 수령은 카드신청 후 2~3주 기간이 소요되며, 신청량 급증 및 우편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